제16강 메를로-뽕띠: 불투명성의 살 시간론 Ⅱ

(1교시)

2. 불투명성과 시간성

1) 시간성에 대한 사유의 실마리

“시간은 삶의 의미다(의미: 사람들이 물 흐름의 의미에 대해 말하듯, 어구의 의미 · 자료의 의미 · 냄새의 의미에 대한 것)”라는 클로델의 말, 그리고 “현존재의 의미는 시간성이다”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서두에서 인용하면서 메를로-뽕띠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시간성’에 관한 절을 시작합니다.(469쪽) 시간이 삶의 의미라니, 어디에서 많이 듣던 언명입니다. 인간은 현존재이고, 현존재의 의미는 마음씀(Sorge)이고, 마음씀의 의미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시간론과 바로 직결되는 언명입니다. 하이데거에서 결국 시간성은 인간 삶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메를로-뽕띠의 시간론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시간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귀결은 사뭇 대립됩니다. 하이데거가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미래를 향해 선구적으로 결의함으로써 시간성이 열린다고 보는 반면, 메를로-뽕띠는 불투명한 몸의 침전된 주름으로부터 즉 과거로부터 시간성이 열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다소 편한 길을 택하여 메를로-뽕띠가 말하는 시간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결론을 미리 가져와서 역순으로 사유를 밟아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삶의 의미를 시간성이라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삶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성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2) 시간성에 대한 실마리인 탈자

지금 여기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느끼는, 즉 지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하는 주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광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건 생각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되는 광경은 지각하는 주체를 싸안는 듯하면서 주체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을 가합니다. 광경이 주체에게 작용을 가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가 다른 광경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유와 감정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일정한 흐름의 사유와 감정과 행동 방식을 연출함에 따라, 혹은 연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어지는 광경은 뭔가 달라집니다. 즉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역시 간단합니다. 주체는 그저 거울처럼 수동적으로만 광경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체가 사유를 할 수 없고 감정을 일으킬 수 없고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되면 주체도 아니겠습니다만, 광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유의 대상도 아니고 감정과 연결되는 힘도 아니고 행동의 무대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광경이 지니는 의미는 사유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하는 주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www.artnstudy.com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체 이전의 광경이 먼저 있고, 거기에 주체가 개입됨으로써 비로소 지금 여기의 광경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와 광경이 한꺼번에 마치 이미 '뭔가'에 휩싸인 듯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는 메를로-뽕띠가 지각에 대해 누차 말한 내용입니다. 지각 주체가 지각 대상인 사물 속에 이미 퍼져 나가 있고 지각 대상인 사물이 지각 주체에 이미 끌려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는 지각 주체를 몸으로 보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몸이야말로 지각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인 지각 주체를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체는 이미 자기를 벗어나 있는 자기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대하고 있는 자기 즉 대자존재로서의 자기는 아닙니다. 아예 자기를 벗어나면서 벗어난 자기를 저쪽 지각장 속으로 던지면서 소멸하려는 듯한 자기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주체란 것이 완전히 소멸되어버리는 자기도 아닙니다. 자신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이에 관련되는 메를로-뽕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의미라는 말의 여러 어의(語義)들에서 우리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동일한 개념을 발견한다. 그 존재는 자신이 아닌 것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고 또 그것을 향해 극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탈자(脫自 ek-stase)로서의 주체라는 개념에 도달한다. 그리고 주체와 세계 간의 활동적인 초월의 관계에 도달한다. 세계는 주체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주체는 세계에 대한 투사일 뿐이다. 또한 주체는 세계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가 스스로를 투사하는 세계다. 주체는 세계에의-존재이고, 세계는 계속 "주체적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짜임새와 분절은 주체의 초월 운동에 의해 설계되기 때문이다.(491～492)

주체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없는 것, 즉 자기가 아닌 것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것을 향해 항상 수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메를로-뽕띠는 '탈자'로서의 주체라는 개념으로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하이데거적인 개념입니다. 하이데거 시간론을 하면서 후기 하이데거에서의 시간문제를 아쉽게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하이데거는 후기로 넘어가면서 초기의 실존 중심에서 탈존 중심으로 사유를 전환합니다. 그러한 전회는 하이데거 사상의 연구에서 복잡하게 논구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저로서는 정확하게 전달할 만큼 공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데거의 탈존 개념은 근본적으로 탈자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위 메를로-뽕띠의 말에서 나타나는 탈자는 어디까지나 지각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와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는 주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이데거 주석가로 유명한 오토 푀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이 탈존으로 된다면,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에서의 중심점은 실존에서부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진리에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전기에 사유된 것이 바뀌어 사유된다. 예를 들자면 현존재의 분위기 잡혀 있음은 더 이상 인간의 변화하는 기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건넴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각기 사유를 존재자에 대한 자신의 진리의 전달에로 규정하고 그래서 사유를 그의 세기적인 독특함에 있어 조율하는 '존재의 목소리'에서부터 이해된다.

이것을 보면 하이데거의 탈존은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이라는 문제 틀 위에서 움직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내지는 기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사유의 분위기이고 사유를 둘러싼 기분입니다. 그런 만큼 하이데거의 탈존 내지는 탈자는 어디까지나 사유의 분위기에서 자신

www.artnstudy.com

의 사유가 그저 자신의 결단으로부터 열린다는 실존 중심의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 '존재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른바 탈자 중심의 사유 방식에서 성립한다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사유를 위한 기분에서 출발하고, 메를로-뽕띠는 사유 이전의 사유의 원천이 되는 지각 및 몸의 상황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에 메를로-뽕띠의 입장에 서서 보면, 하이데거의 탈존과 탈자의 가능성은 기실 메를로-뽕띠의 탈자의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를로-뽕띠가 말하는 탈자 개념은 몸과 세계라고 하는 상황과의 뫼비우스 띠와 같은 상호 교차적인 관계에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3) 이미 주어지는 주체와 세계의 분리 불가능성

다시 메를로-뽕띠의 주체와 세계와의 분리 불가능성으로 돌아가 시간에 대한 사유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물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합니다. 이때 의미의 이해는 물론 주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주체는 근원적으로 사유의 주체가 아니라 삶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이해는 바로 그러한 사물이나 사건을 '사는' 혹은 '살아내는' 데서 이미 성립한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미들은 이미 주체의 삶 자체에 젖어들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세계와의 분리 불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사유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느낌은 아직 정립하는 의식을 통해 반성적으로 정립되기 전의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의미들의 짜임새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그것에 의해 침투당해서 이미 그러한 의미들의 짜임새에 끌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존재론적인 선차성을 갖는 것은 바로 세계입니다. 메를로-뽕띠는 앞선 인용문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의미함의 요람이고, 모든 감각의 의미이고, 그리고 모든 사유의 토양이다. 이 세계와 더불어 실재론과 관념론 간의 양자택일, 우연과 절대 이성 간의 양자택일, 무의미와 의미의 양자택일을 넘어서는 수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드러내고자 했던 세계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우리 삶의 지평과 통일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투사의 종착점이다. 그것은 더 이상 구성하는 사유의 전개도 아니고, 부분들의 우연한 집합도 아니고, 잘 알려진 것처럼 무차별한 자료에 대한 지배적인 사유의 활동 결과도 아니다. 그 세계는 모든 합리성의 모태다.(492쪽)

메를로-뽕띠의 현상학에서 세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문제는 그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세계와 관련해서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여기에서 메를로-뽕띠는 세계를 모든 의미함과 의미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 대한 사유의 근본 토양이자 탄생지로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합리성의 모태로 봅니다. 결국은 그러한 의미와 모든 합리성의 모태로 돌아가서 사유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주체와 세계가 근원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얽혀 있음으로써 세계가 의미의 의미가 되고 모든 합리성의 모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원천성을 띤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세계와 끊임없이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영위

www.artnstudy.com

되는 우리의 삶.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한 기획을 하건, 그러한 기획이 이루어지는 현재를 향유하건 간에 그것들은 늘 그리고 이미 세계와의 탈자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으로 가는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라는 낱말입니다. '이미 ……되어 있다'라는 상황을 봅시다. '되어 있다'라는 것은 현재를 지칭하고, '이미'는 과거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면, 과거와 현재가 전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야 맨몸으로 어떤 상황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상황에 들어서 있는 몸으로 역시 이미 어떤 상황에 들어서 있는 것이지요. 메를로-뽕띠가 우리의 주체를 항상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인 몸이 이미 상황에 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라는 시간적인 낱말은 그 의미상 주체로서의 내가 의지를 통해 혹은 결단을 통해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의 시간적인 구조는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인 구조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의 상황은 당연히 미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과거적인 사태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과거가 현재에까지 힘을 미쳐 현재를 만들어내는 근본 사태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미래도 함께 끌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계를 알 수 없는 저쪽 과거에서부터 역시 경계를 알 수 없는 저쪽 미래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는 것이 '이미'라는 시간적인 낱말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미'라는 낱말 자체가 그러한 사태를 연출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사태가 '이미'라는 낱말을 쓰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사태를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체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사건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시간성'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교시)

4) 시간성과 주체와 세계의 통일

이렇게 되면 시간은 주체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체와 대상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란 주체와 대상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존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상황에 처해 있고 이미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늘 사유와 감정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그 의미들이 품어져 나오는 토양인 세계와 이미 교섭하고 있고 거기에서 의미들을 얻어내어 향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에는 주체와 세계를 놓고 다른 한 편에는 시간을 놓아 양자를 분리해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이 어떻습니까? 시간을 벗어나 있다가

www.artnstudy.com

이제야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계 속에서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경험할 때조차 항상 어떻습니까? 시간 속에서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체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집니다. 주체에 대한 경험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주체를 경험하니까 비로소 주체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에 대한 경험은 그 자체로 주체가 이미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함께 줍니다. 세계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집니다. 세계에 대한 경험은 세계가 이미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함께 줍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 대한 경험은 암암리에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가 이미 있었다는 경험을 함께 주고, 주체에 대한 경험은 암암리에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미 있었다는 경험을 함께 줍니다. 결국 주체든 대상이든 세계든 혹은 사건이든 간에 그것들의 의미를 경험할 때, 그 경험은 경험하는 그 의미들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런데 주체를 경험한다든가 세계를 경험한다든가 사물을 경험한다든가 할 때, 사실은 그 의미들을 경험할 뿐입니다.

이같이 경험 대상뿐만 아니라 경험 대상을 넘어선 다른 무엇까지 '이미 있었던 것'으로 함께 주어지는 경험이야말로 시간의 존재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토대는 주체가 이미 세계 속에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즉 사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주체를 몸으로 보지 않고서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몸이라야만 이미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나 정신 혹은 감정이나 사유 내용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 결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들이 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란 몸 자신이 이미 상황에 처해 있는 데서, 즉 세계에의-존재라는 데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가능케 하는 이 세계를 전반적으로 포섭해서 등 뒤에서부터 나를 휘감으며 나를 향해 압도해 들어와 내 속을 가득 채우는 듯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속에서부터 다시 빠져나가 나와 상대하고 있는 세계 속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라지는 듯한 회전/역회전 운동을 이미 끊임없이 연출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5) 살과 시간

나와 세계, 주체와 대상, 몸과 보이는 것, 감각하는 자와 감각되는 것 등을 가로지르면서 회전/역회전 운동을 하는 시간 내지는 시간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메를로-뽕띠의 개념이 바로 살입니다. 메를로-뽕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은 사실 또는 사실들의 총체가 아니다. 하지만 장소와 지금에 들러붙어 있다. 더 나아가 살은 곳과 때의 시발이며, 사실을 사실이도록 하는 바 사실성이라는 말로써 사실의 가능성이자 사실을 요구하는 것이다.(184쪽)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문제 삼는 시간은 때입니다. 때는 시간이 응축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데가 밝힌 것처럼 세속의 시간을 정지시키고 신성의 시간이 지배하는 때, 니체 식으로 정오의 시각에 영원회귀의 존재론적인 에너지가 응축되는 때, 하이데거 식으로

www.artnstudy.com

죽음을 선구적으로 끌어안고자 결의를 하는 때. '때가 되었다'는 데서 느낄 수 있듯이, 시간이 무르익는 시숙은 결국 때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때는 미시적인 순간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때는 시간이 충분한 폭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때는 주체의 능동적인 힘에 의한 것도 주체가 마주하는 대상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호 교환적인 두 힘이 성립되는 근원적인 방식을 지배하는 것이 이 때입니다. 메를로-뽕띠는 이 때가 시발 즉 등극하는 것이 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지금'에 들러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때의 한 양상에 불과합니다. 지금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지금을 넘어서서 모든 지금을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인 가능성의 원천이 곧 때라 하겠는데, 그 때의 발휘가 곧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은 존재의 근본 원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를로-뽕띠는 결국 모든 장소들이 응축되는 곳과 모든 시간들이 응축되는 때의 발휘야말로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이라 본 셈입니다. 요컨대 존재와 살과 시간성으로서의 때는 다같이 불투명성을 근본 원리로 해서 늘 그리고 이미 발휘되는 것이겠습니다.

6) 불투명성과 시간성

결국 시간은 불투명한 셈입니다. 그것은 삶이 불투명하기 때문이고, 삶의 주체인 몸과 삶의 배경인 세계가 불투명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드러나는 불투명성의 지대를 통해 우리에게 멀리 있는 존재의 불투명성을 예감케 되고, 다시 거꾸로 존재의 불투명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간이란 물리학적인 양적 관계로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 작용의 내적인 형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본래 시간이란 객관화된 시간도 의식화된 시간도 아닙니다. 살이 몸의 세계와 세계의 몸을 통해 곳과 때로서 제 스스로를 연출해 내는 것임을 염두에 둘 때, 때로서의 시간은 주체와 객체를 아울러 꿰뚫는 불투명한 살로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수직으로 내려 꽂히면서 켜켜이 두께를 더하면서 응축되는 시간이 도래할 때, 우리는 거꾸로 그 시간이 결정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울러 시간의 수직적인 두께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응축/폭발의 수직적인 운동을 일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각덩어리인 살이 때의 시간성으로서 분출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광제

www.artnstudy.com